

1. 이슈 분석

노인 난청 환자의 정신질환 진료현황

1. 분석 배경

- 난청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말이나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으로, 이로 인한 진료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
- 난청이 있는 노인은 소외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, 정신질환이 발생한 난청 진료 환자의 국내 현황을 분석함

2. 분석 방법과 내용

- **대 상** : 2011년 난청¹⁾으로 진료받은 65세 이상 환자
 - ▶ 이전에 난청 혹은 정신질환²⁾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제외
- **자료원** : 2011년~2016년 건강보험 청구자료
- **분석 방법**
 - ▶ 2011년 난청으로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(이전 정신질환 진료없음)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난청 진료 환자와 정신질환 발생 현황 비교(첫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'16년 12월까지 추적 관찰)
 - ▶ 대조군은 난청 환자의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1:1 매칭하여 설정함

3. 분석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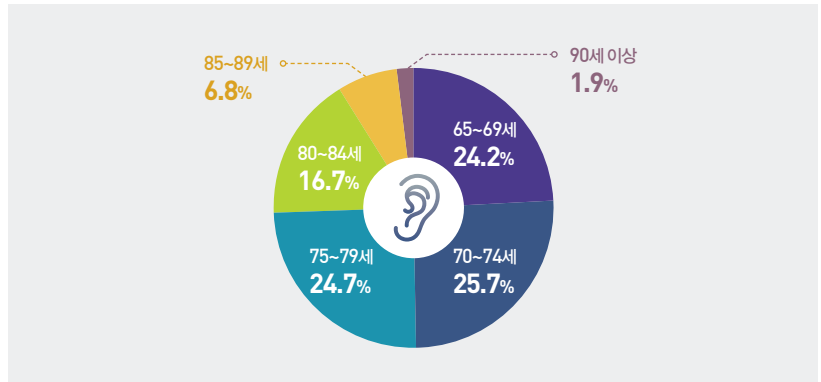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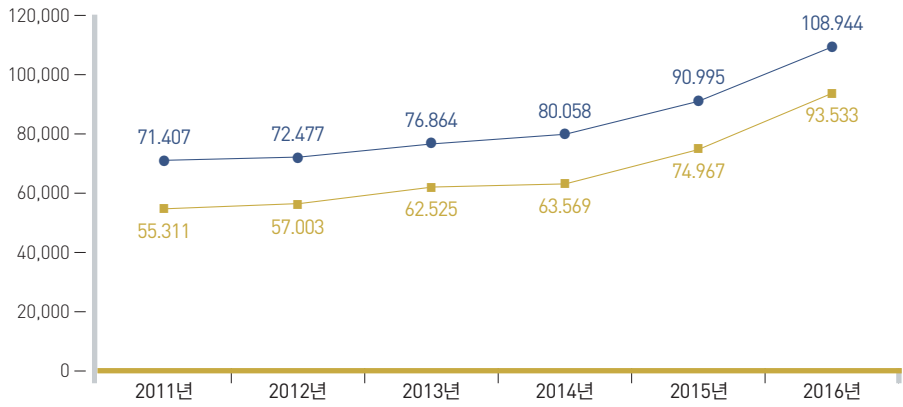
- 65세 이상 난청 진료인원은 2011년 126,718명에서 2016년 202,477명으로 59.8%(75,759명) 증가하였으며, 최근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

1) 난청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(H90)과 기타 난청(H90)으로 정의함

2) 정신질환은 정신 및 행동 장애(F00~F99)로 정의함

[그림 1] 난청 진료 환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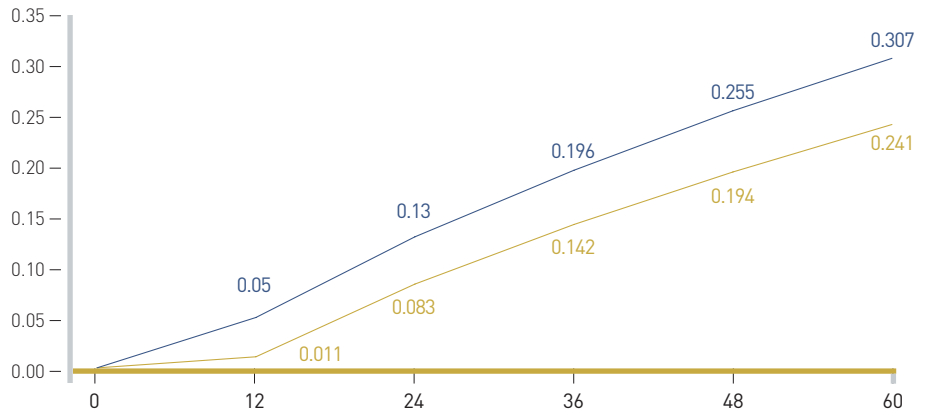
(단위: 명)



- 난청 환자(105,350명)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5년동안 정신질환 발생을 추적한 결과, 난청 환자의 정신질환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

[그림 2] 난청과 비난청 환자의 정신질환 발생 확률

기간(월)



- ▶ 난청 환자는 난청으로 처음 진료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5년 내에 정신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30.7%로, 비난청 진료 환자(24.1%)보다 1.3배 높음

[표 1] 난청과 비난청 환자의 정신질환 발생 확률 (단위: %)

	1년	2년	3년	4년	5년
난청 진료인원	5.0%	13.0%	19.6%	25.5%	30.7%
비난청 진료인원	1.1%	8.3%	14.2%	19.4%	24.1%

- 정신질환 중에서는 치매, 불안장애, 우울증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함
 - ▶ 치매가 가장 많이 발생(13.3%)하였으나, 두 집단 간 발생률의 차이는 없음
 - ▶ 다음으로 진료 환자가 많은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생 비중은 난청 환자에서 각각 8.2%, 6.7%로, 비난청 환자의 5.8%, 4.6% 보다 높게 나타남

[표 2] 다빈도 정신질환과 발생 환자수

순위	질환명	KCD코드	난청 환자		비난청 환자	
			인원(명)	비중(%)	인원(명)	비중(%)
1	치매	F00, F01, F02, F03	14,037	13.3%	14,059	13.3%
2	불안장애	F40, F41	8,675	8.2%	6,145	5.8%
3	우울증	F32, F33	7,085	6.7%	4,886	4.6%
4	뇌손상,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	F06	6,615	6.3%	4,538	4.3%
5	비기질성 수면장애	F51	5,139	4.9%	3,957	3.8%

4. 결론

- 난청 환자는 정신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다른 환자에 비해 높으며, 특히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생률이 높음
- 난청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대화 단절 등을 가져오고, 이는 대인기피증, 우울증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난청이 의심되면 원인 진단과 보청기 착용 등 관리가 필요함